

numbers 제 40호



주요 내용

2020. 03.27

1. 악플도 범죄다, 65%
2. 마스크 5부제 찬성, 68%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일반사회통계

**악플도
범죄다! 65%**

2019년 유명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 그들이 자살하기 전에 악성 댓글(악플)에 시달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악플에 대한 비난의 커졌다.

댓글은 사회적 여론 수렴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못지 않게 많은 역기능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심지어 정치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악플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사회적 경계심이 또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플은 넘쳐나고 있다.

[넘버스] 40호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악플은 어느 정도 확산하였는지, 악플을 다는 동기는 무엇인지, 악플의 대상은 누구인지 악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다루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악플은, '범죄다'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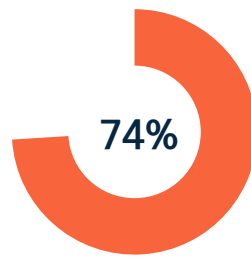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댓글에 대해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74%), 심지어 '악플(악성 댓글)은 범죄다'(65%)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악성 댓글에 대한 인식(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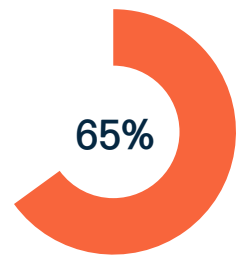
• 악성 댓글 정의

특정 대상 또는 그 대상 관련 온라인 상 게시물에 대한

- 1)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불만/비동의 표현
- 2) 비방/험담
- 3) 욕설/비속어
- 4) 부정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비유적 표현
- 5) 부정적 개인의 취향/평가 표현 등을 모두 포함



최근 들어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이 지나치게 선을 넘은 느낌이 든다



악성 댓글도 하나의 범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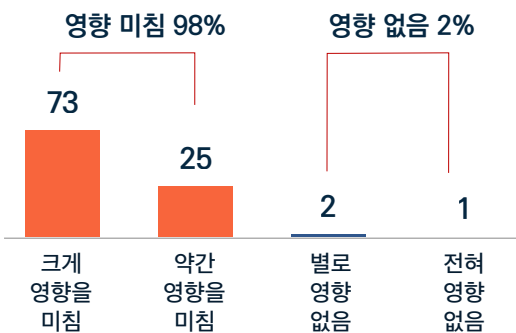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0 포털사이트 뉴스 및 댓글 관련 인식 조사', 2020. 2.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자료 출처 : SM C&C Tillion, '악성댓글(악플) - 악성 댓글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2019. 11. (전국14~59세, 남녀 1,163명, 온라인 조사)

2 악플은, '연예인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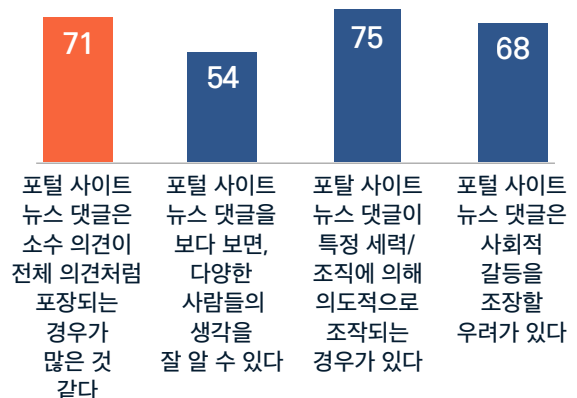
- 2019년 연예인 자살(설리, 구하라 등)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98%의 응답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그만큼 악플이 사회적 문제임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또한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는 긍정적 기여(54%)도 있지만 특정 의견이 과대 대표(71%)되거나 심지어 조작되는 경우(75%)가 있어서 여론 조작이 우려되고 결국 사회적 갈등이 조장(68%)된다고 응답함

[그림] 최근 연예인 자살 사건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동의율) (%)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댓글페이지와 실검 페이지에 대한 인식조사', 2019. 12.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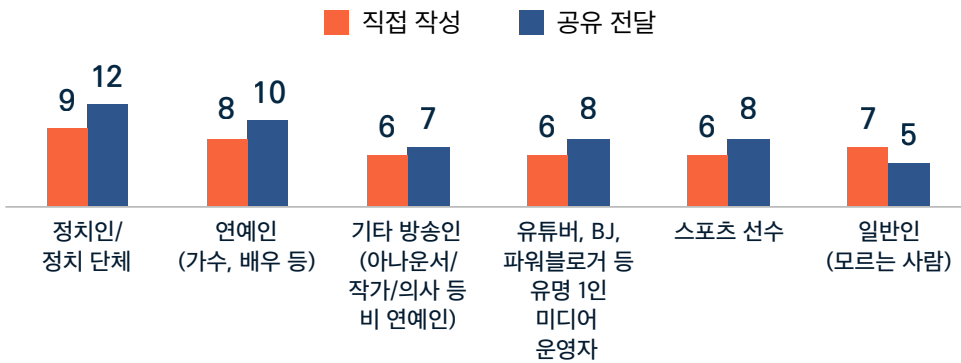
[그림] 포털 뉴스 댓글에 대한 인식(동의율) (%)



3 악플의 대상은 무차별적이다

- 악플의 대상자 중 정치인과 연예인처럼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악플을 다는 비율이 높지만 일반인도 큰 차이가 없어서 악플은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행해진다고 볼 수 있음

[그림] 악성 댓글 대상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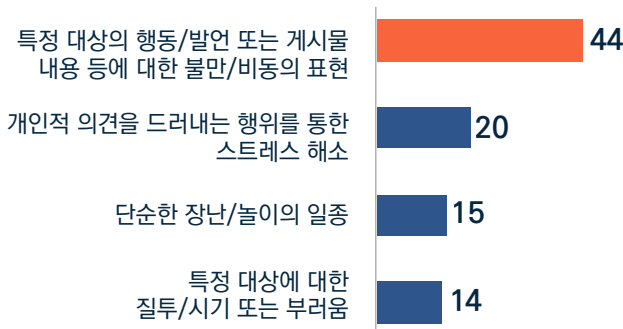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SM C&C Tillion, '악성댓글(악플) - 악성 댓글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2019. 11, (전국14-59세, 남녀 1,163명,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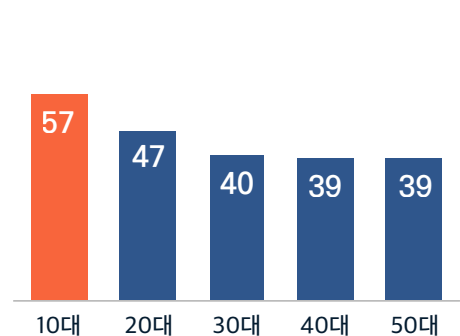
4 악플은 '불만의 감정과 스트레스 해소 욕구가 함께 깔려 있다'

- 악플을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불만과 비동의' 때문이라는 이유가 44%로 가장 높았음 '불만/비동의'는 게시물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악플의 표현 양식을 보면 일종의 '불만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여과 없이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 다음 '스트레스 해소'(20%), '장난/놀이'(15%) 와 같이 무책임한 동기가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이 낮을수록 '불만/비동의' 때문에 악플을 다는 비율이 높아짐

[그림] 악성 댓글을 다는 이유(상위 4위)



[그림] 악플을 다는 이유로서 '불만/비동의' 비율 (%)



*자료 출처 : SM C&C Tillion, '악성댓글(악플) - 악성 댓글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2019. 11, (전국14-59세, 남녀 1,163명, 온라인 조사)

5 우리 국민, 악플 작성 경험, 34%

- 14~59세 남녀 3명 중 1명(34%)은 포털, 뉴스, SNS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온라인 게시물에 악플을 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 악플을 동의하거나 공유/전달한 경험은 37%로 조사됨
- 악플 작성과 공유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악플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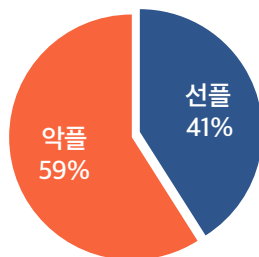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SM C&C Tillion, '악성댓글(악플) - 악성 댓글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2019. 11 (전국 14~59세, 남녀 1,163명, 온라인 조사)

● 선플 41% vs 악플 59%

- 만 19세 이상 남녀에게 인터넷 웹 사이트, SNS,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달리는 댓글을 '선플'(좋은 댓글)과 '악플'(악성 댓글)로 구분하고 그 비율에 대해 합이 100이 되도록 물어본 결과, 선플 41%, 악플 59%로 응답자들은 악플이 선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음

[그림] 선플과 악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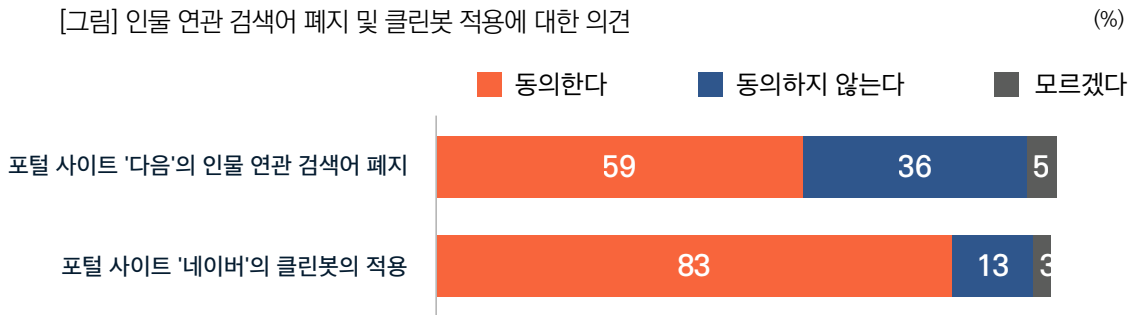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악성댓글, 이대로 괜찮은가', 2019. 11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6 악플에 대해, 다양한 방지책 요구 증대!

● 우리 국민, 포털 사이트의 악플 방지 노력에 대한 기대감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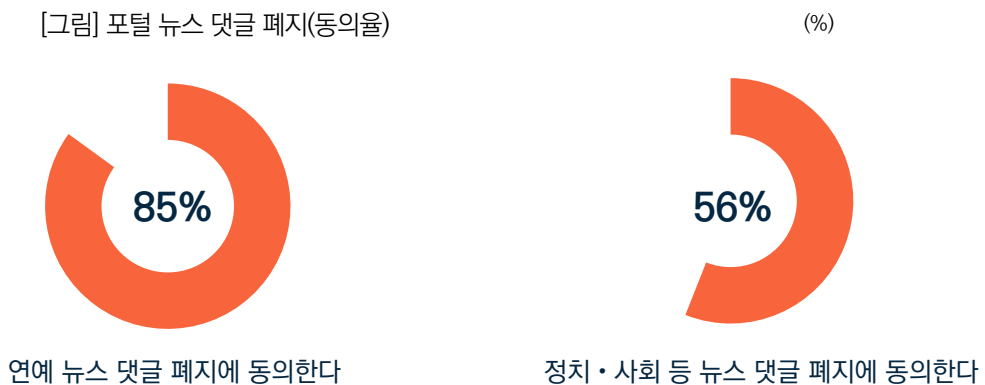
- 포털 사이트의 '인물 연관 검색어'는 연예인 등 특정 인물의 과거 이력 등이 노출되어 악성 댓글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 '인물 연관 검색어'를 폐지하는 데 59%가 동의하였고, 욕설 등이 들어간 댓글을 인공 지능으로 걸러주는 '클린봇'을 적용하는 데에 83%가 찬성함. 그만큼 포털 사이트에서 악플을 걸러주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악성댓글, 이대로 괜찮은가', 2019. 11,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연예 뉴스 댓글 폐지에 동의한다'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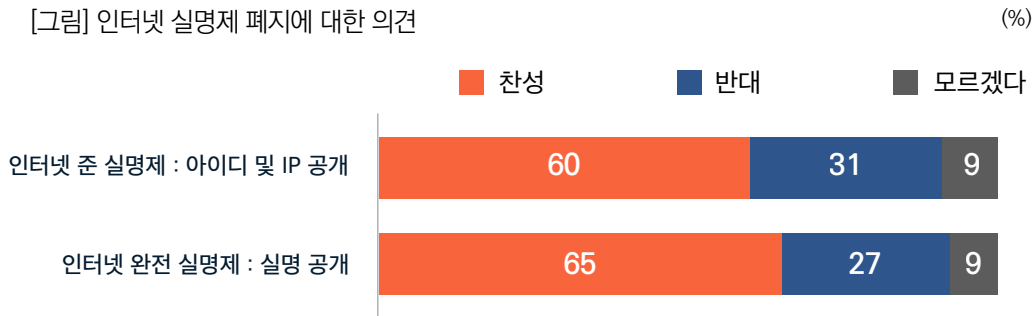
- 악플은 연예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크므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음. 연예 뉴스 외에 정치·사회 뉴스의 댓글 폐지 의견도 2명 중 1명(56%)으로 높게 응답함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댓글폐지와 실검 폐지에 대한 인식조사', 2019. 12.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인터넷 실명제, ‘찬성한다’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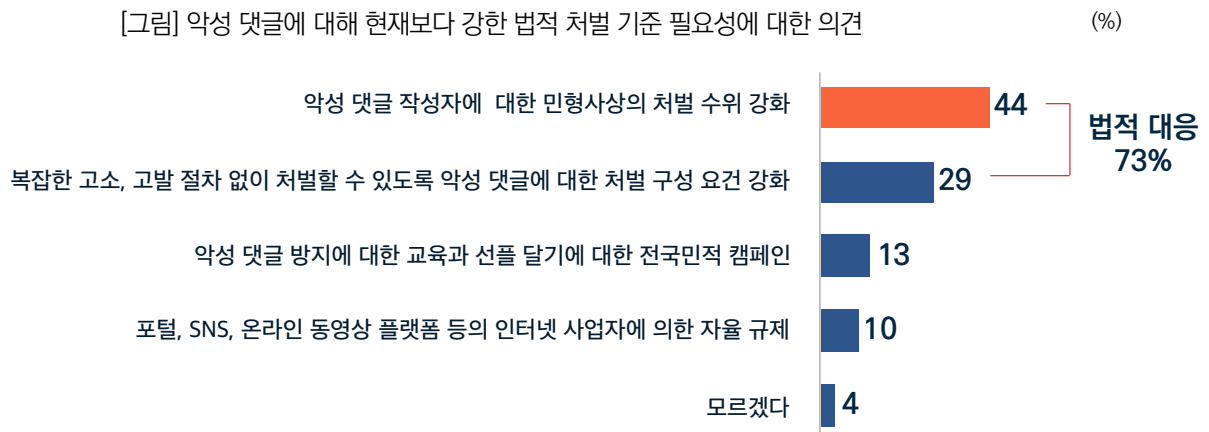
- 악플을 조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익명성이므로 댓글을 달 때 악플을 방지 내지 감소시키기 위해 작성자 실명을 공개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높음. 이와 관련 아이디와 IP만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준실명제(60%)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완전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자료 출처 : SM C&C Tillion, ‘악성댓글(악플) - 악성 댓글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2019. 11, (전국14~59세, 남녀 1,163명, 온라인 조사)

● 악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73%

- 댓글이 악플일 경우 현재보다 더 강한 법적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나 지금보다 악플 처벌에 대해 단호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악성댓글, 이대로 괜찮은가’, 2019. 11,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6 시사점

악성 댓글(일명 악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악플이 특히 문제가 된 것은 2019년에 자살한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와 구하라가 악플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악플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졌다.

악플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악플이 게시글에 대한 단순한 자기 의견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악플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퍼붓거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범죄 행위이다(3쪽, 5쪽). 게다가 악플을 다는 동기가 게시글에 대한 불만 외에 스트레스 해소, 장난/놀이, 질투/시기심이라는 것(4쪽)을 알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다.

댓글은 원래 사이버상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여 다양한 여론을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선한 목적을 기대했을 터이나, 현실에서는 악플의 폐해와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댓글을 폐지하거나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며, 심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라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댓글을 폐지하고 악플을 처벌하고, 또는 악플을 무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댓글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댓글을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댓글이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다른 의견끼리 서로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는 순기능을 인정한다면 악플은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댓글이 건전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공론장에 참여하기 어렵다. 셀럽(유명인)이 아닌 경우에는 발언의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존중해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제약 없이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세상이다. 비록 그들이 잘 짜여진 논리를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투박한 문체라도 거기에서 세상의 돌아가는 이야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교회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교회를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난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와중에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고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에 달린 댓글은 읽기조차 민망한 글로 도배되어 있다. 그 댓글들 중에는 사실과 다르고, 오해에서 비롯된, 악 감정이 실린 댓글도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러한 악플에 귀를 열어 봐야 한다. 그것이 악플일지라도 거기에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세상을 먼저 이해하고 품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을 수 있겠는가?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성육신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귀를 열고 악플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교회가 바로 잡아야 할 것과 내려 놓아야 할 것을 깨달아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관련 여론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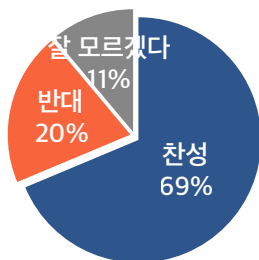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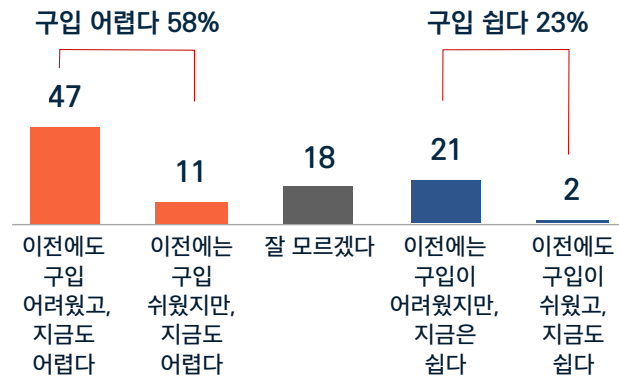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이후 마스크 5부제에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68%, '반대' 20%로 3명 중 2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스크 5부제 도입 이후에도 구입이 어렵다는 응답이 58%로 국민 5명 중 3명 가까이가 5부제 도입 이후에도 마스크 구입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임

[그림] 마스크 5부제 찬반 의견** (%)



[그림] 마스크 5부제 이후 마스크 구입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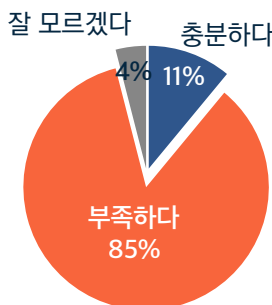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코로나19 3차 인식조사(관련 정책 평가, 마스크 5부제 등), 2019.3.18.(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19.03.13~16)
 **찬성은 '매우 찬성+찬성하는 편', 반대는 '매우 반대+반대하는 편'을 합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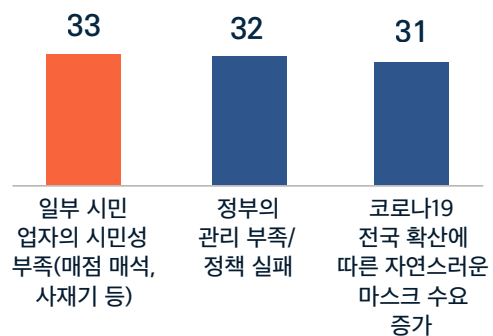
● 마스크 공급, '부족하다' 85%

- 현재 국내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85%로 대부분의 국민이 마스크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
- 마스크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는 시민성 부족(33%)과 정부 관리 실패(32%),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연스러운 마스크 사용 증가(31%)가 비슷하게 응답함

[그림] 마스크 공급에 대한 의견 (%)



[그림] 마스크 공급 부족 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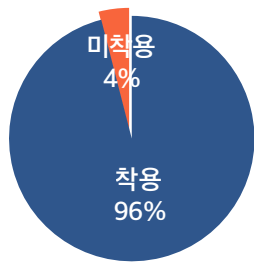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코로나19 3차 인식조사(관련 정책 평가, 마스크 5부제 등), 2019.3.18.(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19.03.13~16)
 **충분하다'는 '매우 충분+충분한 편', '부족하다'는 '매우 부족+부족한 편'을 합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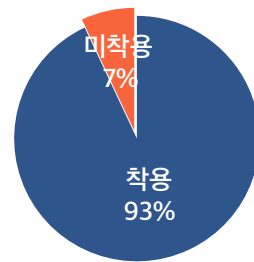
2 코로나19 예방 행동으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한다' 96%

- 코로나19 예방 행동으로 우리 국민의 96%는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대중교통, 사무실 등 '실내에서 착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9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예방 행동으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여부** (%)



[그림] 코로나19 예방 행동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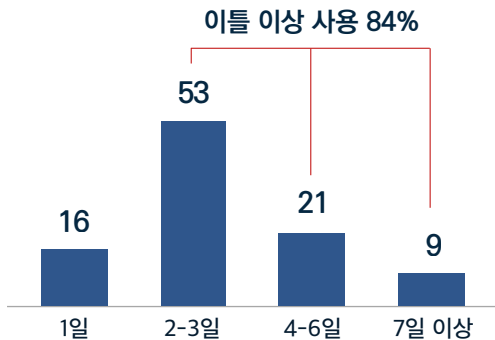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코로나19 3차 인식조사(관련 정책 평가, 마스크 5부제 등), 2019.3.18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19.03.13~16)

**'착용'은 '항상 착용+착용하는 편', '미착용'은 '전혀 착용하지 않음+착용하지 않는 편'을 합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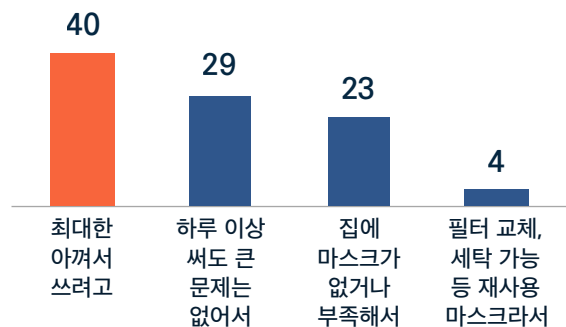
● 마스크, '이틀 이상 사용' 84%

- 마스크 착용하는 응답자들 중 마스크를 '이틀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84%로 나타났으며 이틀 이상 사용하는 이유로는 '마스크를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집에 마스크가 없거나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23%로 나타남

[그림] 마스크 사용 일수** (%)



[그림] 마스크를 이틀 이상 사용 이유***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코로나19 3차 인식조사(관련 정책 평가, 마스크 5부제 등), 2019.3.18.(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19.03.13~16)

** 마스크 착용 응답자 대상임

*** 마스크 하루 이상 쓰는 응답자 대상임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연합뉴스_2020.03.26.

“중소기업 42% ‘코로나19 경영난 3개월 이상 못 버틴다’”



[코로나19 확진자 분석](#)

한국일보_2020.03.23.

“코로나19 확진자 3명 중 1명은 20대...‘거리두기 소홀 탓’”



[코로나19 사망자 분석](#)

중앙일보_2020.03.26.

“확진에서 사망까지 평균 8일, 절반이 고혈압 환자였다”



[코로나19가 바꾼 대학교 풍경-온라인 강의](#)

뉴시스_2020.03.24.

“강의 없고 과제 늘어...대학생 78.9% ‘코로나發 온라인 강의 불편’”



[혐오 표현에도 지역적 차별](#)

세계일보_2020.03.24.

“가리봉선 밤길 조심·서래마을은 맛집 천국’... 외국인 거주지역 두 갈래 시선”



[영화관도 빨간불](#)

조선일보_2020.03.27.

“전체 영화관 30% 문 닫는 CGV... 희망퇴직·무급 휴직까지 영화계 비상”



[포털 사이트 댓글 이력제 도입 이후](#)

매일경제_2020.03.20.

“누가 뭐라 썼는지 공개하니...정치뉴스 댓글 5만개 줄었다”

스토리가 있는 기사



[코로나가 인구 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일보_2020.03.26.

“코로나로 바뀔 일상들(초저출산을 포함하여)”



[지금은 창당의 시대](#)

조선일보_2020.03.21

“자고 나면 창당, 벌써 47개... 억울한당·결혼미래당 등 31개 더 준비중”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훌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후원 교회 |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소망교회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재)CBS CCC 사역연구소

후원 기업 |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후원 개인 | 김성렬 김성은 김재욱 남성태 류지성 박우빈 반기민 배수정 안태근 이인성 이춘봉 조창오 최은아(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